

‘고입’도 풍선효과… 자사고 누르니

과학고 경쟁률 3.54대 1 ‘껑충’

자사고·외고 후기 전형으로 전년보다 경쟁률 14.7%p↑ 경기북과학고 8.53대 1 ‘최고’ 대학 수능최저 자율 적용 등 2022 대입 개편, 특목고 유리 자사고·외고 경쟁률도 상승할 듯

올해 전국 20개 과학교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껑충뛰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가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을 치르면서 전기 모집한 과학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 인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등 정부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특목고에 대한 인기가 지속돼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9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교 정원내 평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54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 3.09대 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원내 전체 지원자는 5802명으로 전년도 5060명보다 742명(14.7%p) 증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경기북과학고로 8.53대 1(전년도 6.85대 1)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한 학교는 2.85대 1(전년 3.17대 1)을 기록한 부산일과학고였고 나머지 19개교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서울지역에서도 한성과학고(4.25대 1), 세종과학고(3.80대 1)가 각각 160명 모집에 595명과 608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과학교 경쟁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전기모집에 선발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올해(2019학년도 고입)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 전형으로 모집시기가 이동됐기 때문이다. 특목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대성고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사진은 7일 서울 대성고 모습.

/연합뉴스

사실상 과학교로 제한돼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중3 대상의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도 경쟁률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불리한 과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30% 이상 뽑으면 유리하다. 또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중3 학생수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점도 경쟁률 상승 요인이다. 올해 중3 학생 수는 46만 8837명으로 전년도(45만 9935명) 대비 8902명 많다.

후기에 선발하는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 또한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후기에 동시 선발하면서 탈락할 경우 집에서 면원거리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사고 지원율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 거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도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

이다.

서울지역 중3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2개를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 중 2개교를 선택해 지원 할 수 있고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에 2 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에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끝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돼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3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특목고 인기가 계속될 기반이 생김에 따라 정부의 특목고 점진적 폐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지난해까지 특목고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성고가 서울시교육청에 낸 자사고 지정 취소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성고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업난에도… 中企 신입 10명 중 3명은 ‘조기퇴사’

잡코리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신입사원 퇴사 이유 1위 ‘낮은 연봉’
‘적성·생각했던 직무 아냐’ 뒤이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은 30.2%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퇴사가 가장 많았던 직무(복수응답)는 ‘영업직’이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서비스’(19.6%), ‘생산/현장직’(17.6%), ‘고객상담/TM’(12.8%), ‘IT/정보통신직’(12.2%) 등의 순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많았다.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이 낮아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5.7%),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서’(23.0%),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21.6%), ‘중복입사지원했던 다른 기업에 취업이 확정돼서’(17.6%), ‘막상 일을 해보니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16.2%) 등의 사유가 나왔다.

소수 의견으로는 ‘야근이 많아서’(7.4%), ‘복리후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7.4%), ‘상사나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5.4%) 등도 있었다.

이처럼 조기 퇴사하는 신입 직원이 많은 까닭일까. 이번 설문에 참가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 86.2%는 ‘직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복수응답)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해 지원자를 더 모집한다’(61.7%)가 가장 많았고, ‘업계 지인의 추천을 받는다’(41.5%), ‘사내 직원 추천’(35.1%), ‘학교 취업정보실에 연락’(18.1%) 등 추천을 받아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예 채용을 포기

한다’(9.6%)는 기업도 10곳 중 1곳에 달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입사후 조기퇴사나 잦은 이직은 경력관리에 좋지 않다”며 “실제 신입사원들의 조기퇴사 사유를 보면 연봉 외에 직무가 맞지 않거나 상이한 업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입사를 결정하기 전 지원한 직무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이미지=픽스타

오늘부터 대입 수시 원서접수

서울 주요 대학 12일 접수 마감
대학별 자소서·추천서 입력 등
마감일·시간 상이해 유의해야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0일~14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대부분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대학별 자소서나 추천서 입력 마감 시간도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 입시 일정을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대학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간도 차이가 있다. 12일 마감하는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는 오후 5시에 마감하지만, 숙명여대, 이화여대 마감시간은 오후 7시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 원서접수 마감은 6시다.

자기소개서 입력마감 시간도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대학중 연세대는 면접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자소서 입력 마감이 당일 오후 10시다. 대다수 대학들은 이튿날인 13일 오후 5시~6시이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14일 마감, 중앙대는 17일 오후 6시가 마감시간이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교육대학들의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대부분 13일 마감하고, 14일에는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등과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이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물론 마감 시간과 서류 마감일정 등을 숙지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수시원서 접수는 전형료 결제를 끝으로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등은 마감 시간까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므로 미완성된 상태에서 초기 입력한 이후에 최대한 검토해 완성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상명대 ‘中企 직무분석 경진대회’서 서울특별시장상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경영학부 학생들이 2018년 중소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2018년 중소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애할 수 있도록 분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국대 ‘창업발전소 KU창업캠프’ 참가자 모집

건국대학교는 창업지원단(단장 이철규)이 교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 대상 ‘2018 대한민국 창업발전소(KU창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KU 창업캠프는 14일~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캠프는 창업특강과 실습,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창업자까지 창업에 관심있는 다양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다. 전 과정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 마감은 11일 17시까지다.

참가자에게는 건국대 창업지원단장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창업지원단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국대 학부생의 경우 창업학생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추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도 선정될 수 있다.

인천재능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산학연 MOU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5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TP) SW융합진흥센터, 메디치이엔에스(주)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재능대학교는 지난 5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TP) SW융합진흥센터, 메디치이엔에스(주)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재능대 컴퓨터정보과 졸업생과 재학생 26명에게 ‘VR/AR 콘텐츠 및 응용SW 개발 교육 과정’이 무

/한용수 기자